

# 간호원의 위치에 대한 역사적고찰: 임상행정부문

김 정 숙

(전 남가주 한인간호원회장)

앞으로 우리 간호들의 임상행정부분에 있어서의 위치를 이야기하기전에 간단하게 1960년이래 지금까지 우리 한인 간호원들의 이민사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문화와 풍습이 다른 나라에서 언어장애를 극복해 나가면서 처음에는 Nurse's Aid로 시작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R.N.이라는 위치를 찾기에 노력하였으나 이제는 R.N. License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병원 각계 각층에서 다른나라 간호원들과 어깨를 겨루며 말은바 소임을 충실히 해나가고 있는 우리 한인간호원들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기까지는 각주에 발원족 우리 한인간호원회의 힘이 컸다고 봅니다. 특히 남가주, 시카고, 뉴욕 그리고 워싱턴주 등지에서는 R.N. Review Course를 개최 우리 간호원들이 제위치를 찾는데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아 있었던 서클 프런서도 우스운 이야기들이 한 두가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18년전 처음 미국이라는 곳에 도착했을때 병실에서 전화만 올리면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전화벨이 Stop 되기만 기다리던— 또 의사의 지시를 이해못해서 내가 처리해야 할 것을 약국으로 보내놓고 무안을 당했던 일이 생각납니다. 지금은 그 옛일을 토대삼아 우리 한인간호원만이 아니라 미국학생 그리고 간호원들을 상대로 간호교육을 할 수 있게 된 것이 우리 간호원들이 걸어온 이민 20년에 이룩한 한 예가 아닐까 싶습니다. Head Nurse, Supervisor는 물론 이제 한인 간호원들이 병원에 Nursing Director로 있으며 앞으로는 병원의 책임을 맡는 병원 Director도 나오리라 믿고 있습니다. 임상행정부분에 있어서의 간호원의 위치를 긴 연구시간 없이 잘자기 말씀드려야 했기

때문에 제 의견 정도에 미치지 않겠으나 간단히 아래 3가지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첫째는 Hospital System과 Nurses'입니다. 롱베르 병원에는 Authority가 Position Dual Authority System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즉 Hospital에서의 Order는 Hospital Administrator와 Medical Director 두분야에서 생각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런 Dual System에서 우리 간호원의 위치가 어디에 있었는지? 제생각에 10년전까지만해도 Nurse는 Medical Director나 또는 Hospital Administrator 밑에 존재하고 있었읍니다. 허나 지난 10년동안에 병원에서 간호원의 위치가 변하고 있음은 목격할 수 있었읍니다. 간호원의 위치가 이제는 좀 높아져 Medical Director나 Hospital Administrator 바로 밑에 소속되어 있지 않고 병행선이 되어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는 간호원들이 Hospital Assistant Director로 활약하고 있으며 Hospital Joint Committee Member의 하나로서 patient care plan은 물론 Hospital 운영문제나 방침에 까지 참여하는데 이르렀읍니다.

이런 위치에 이르기까지에는 간호지식도 필요했지만 우리간호원들의 행정에 관한 인식에 차이점이었다고 봅니다. 행정하면 제삼자에게 맡기고 Patient care에 골몰하던 간호원들이 Patient Advocate으로 활약 일상에서 우리의 위치를 찾기 위해서는 Strike도 하게 되었고 Nurse들의 의견을 정부에 알리기 위해서는 국회에 Lobbyist들을 보내어 간호에 관한 문제에 적극 참여한 때문이기도 합니다.

환자의 대변인으로 우리는 좀더 적극적으로

임상행정에 참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같길은 우리가 찾아야 하겠다고 생각됩니다. California Nurses Association에서는 회비의외에 별도로 정치인들을 상대로 Lobbying 할 수 있는 Fund을 모금하고 있습니다. (Voluntarily)

간호원들이 좀더 행정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임상행정에 지식도 늘려야겠지만 이런 정치적인 면에도 신경을 써야하는 시대가 왔다고 보고 싶습니다. 두번째는 임상에서의 위치만 변화된 것이 아니라 그에 따르는 wage에도 많은 변화가 왔습니다. 간호원의 봉급하면 너무 작은 금액이라서 환자들이 잘못이 있을때 병원과의 사들은 고소를 했으나 간호원들은 직접 고소를 당하는 일들이 예전엔 극히 드물었으나 Nurse들의 Income 증가됨에 따라 간호원을 상대로 고소하는 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월달 450불~600불 받던 간호원들이 지금은 1,400불~1,600불 받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증가되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어진 책임이 많아지고 또 변천하고 있는 사회문제, 경제문제에 경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으나 주어진 책임이 증해지고 또 우리의 위치가 높아짐에 따라 오는 현상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제는 임상행정은 물론 법에 관한 상식을 지녀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간호학은 지난 20년사이 큰 발전을 하였습니다. 어느학계에도 지지않는 연구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많은 연구자료들이 임상행정에

서 나와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서정자선생님께서 (원고에서) 말씀하셨듯이 Marlow's basic humon need hierarchy에서 우리간호들은 그 첫 단계를 벗어나서 이제 Esteem을 찾는 첫 단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습니다. Esteem을 찾기 위해서는 우리의 학문이 필요합니다. 돈을 많이 벌어 이젠 환자들이 마음놓고 간호원을 상대로 고소를 하는 시대가 되어진 이때 우리를 권변해 줄 수 있는 간호변호사가 미국에는 탄생되고 있습니다. 우리 한인 간호원들로 우리 위치를 병원안에서 만이 아니라 전 사회에서 확고하게 할 수 있도록 행정에 관한 지식, 법에 관한 지식을 결집하여야 하겠다고 생각합니다.

셋째로 임상 행정에 있어서 앞으로의 저의 견해는 두번째 문제에서 잠시 논한 바 있는 연구 문제입니다.

Nurse들의 위치가 높아지고 보수가 많아지긴 했으나 임상행정에 관한 Research가 적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간호교육, 간호원의 질적향상 그리고 patient care에 관한 Research는 많이 되어 있으나 임상행정에 관한 Research는 적은 숫자에 이르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행정은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분야라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간호원들이 (특히 임상행정에 편여되어 있는) 솔선해서 임상행정에 관한 연구를 해야 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세가지 임상행정에서 본 우리 간호원들의 위치를 간단히 말씀 드렸습니다.